

# 북한실태 인식

김병로

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

# 목차

1. 내부체제 인식 현황
2. 결정요인 분석
3. 체제의식이 통일,대남,주변국  
인식에 미치는 영향
4. 결론

# 1. 내부체제 인식

## (1) 주체사상 자부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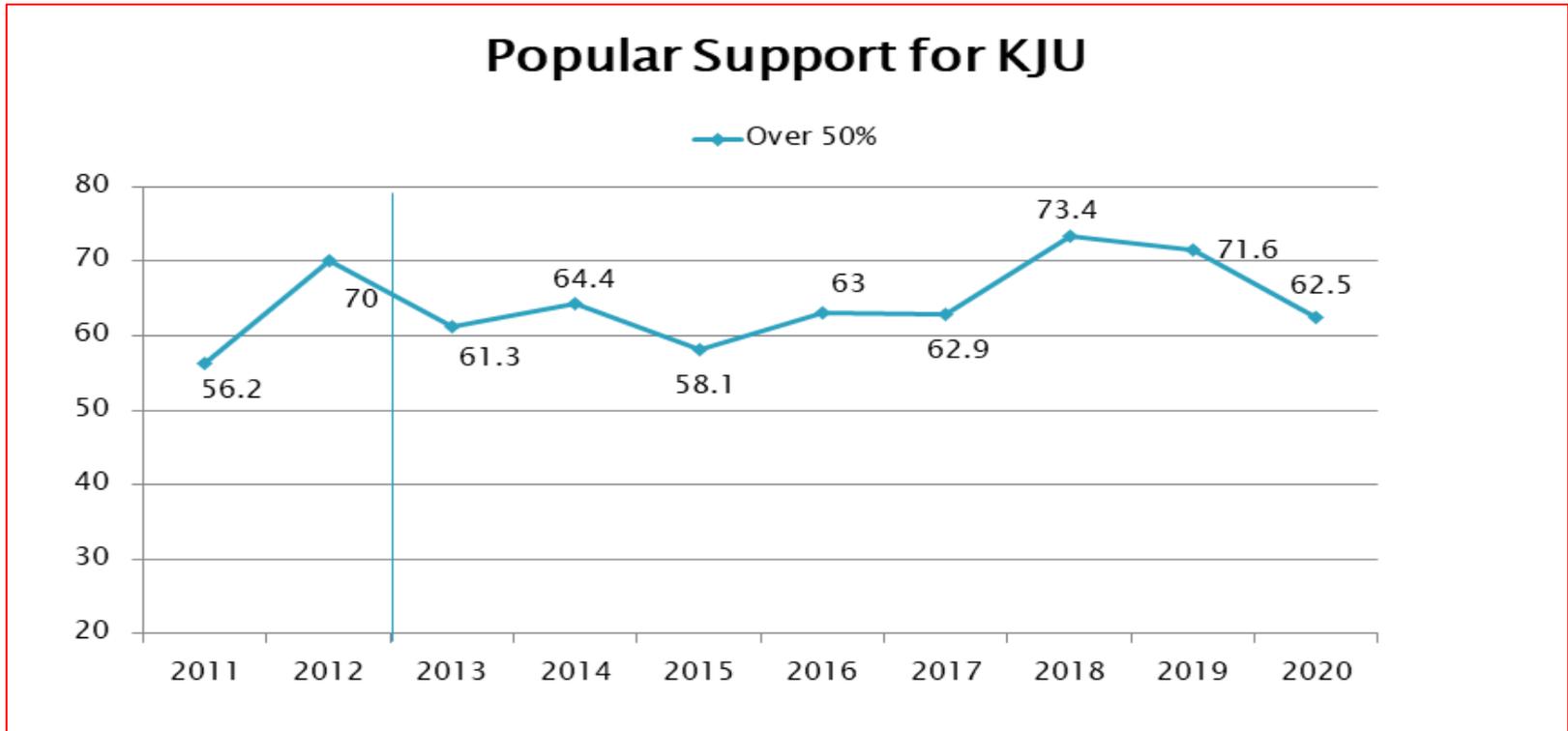
- “매우 큰 자부심” 36.0%
  - “약간의 자부심” 23.4%
  - “별로 자부심 없다” 31.0%
  - “전혀 자부심 없다” 9.3%
- ‘있다’ 59.4%,  
‘없다’ 40.3%
- 2013년 이후 상승,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
    - 경제성과 미흡, 10년차 피로감, 미국과 협상모드로 자주의 정당성 약화 등
  - 관련변수

성별	연령	장사경험	당원	교육	남한친척	남한문화접촉	비공식소득	
/	0.0668	-0.0831	-0.180	0.299	-0.0515	-0.149	-0.191*	0.0115

# 주체사상 자부심과 연령변수

주체사상 자 부심	연령대					전체
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이 상	
있다	61.9%	60.5%	58.8%	56.2%	53.0%	59.6%
없다	38.1%	39.5%	41.2%	43.8%	47.0%	40.4%
합계	100.0 %	100.0 %	100.0%	100.0%	100.0%	100.0%

## (2) 김정은 지지도



- 평균 63.7%

# 김정은 지지도 관련 변수

성별	연령	장사경험	당원	교육	남한친척	남한문화접촉	비공식소득
0.0508	-0.225**	-0.252	0.0346	-0.183	-0.243	-0.200*	0.0097
							6

김정은지지도	연령대				
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 이상
50%이상 지지	71.1%	68.9%	55.6%	57.2%	50.7%

- 정부 비판행위 58.2%(있다), 41.3%(없다)
  - 전반적 하락 추세
- 핵무기 보유 찬성 50.2%, 반대 22.6%, 반반27.3%

### (3) 경제의식

- 직장내 생산규율: 정상운영 32.8%, 변칙운영 66.5%
- 경제악화원인: 군사비지출 25.9%, 개혁개방안해서 20.7%, 지도자 20.7%
  - 지도자 때문 의식 감소, 개혁개방/미국의 경제제재 이유 상승
- 사회주의경제(계획경제) 24.1%, 자본주의경제(시장경제,개인소유경제) 70.7%
-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의식
  - 기대보다 적다 6.8%
  - 상승하고 있다 4.8%(2014)→12.3%(2020)

## (4) 사회의식

- 사회통제: 유지되고 있다 39.6%, 유지되지 않고 있다 60.3%
  - 2016년 이후 완화 추세
- 관련변수

성별	연령	장사경 험	당원	교육	남한친 척	남한문화 접촉	비공식 소득
-0.295*	0.0939	-0.192	-0.248	-0.0107	0.0401	0.0246	-0.00358

- 다른 지역 방문: 자주 가보았다 26.3%, 가끔 가보았다 39.6%, 거의 가보지 못했다 33.9%
- 관련변수

성별	연령	장사경험	당원	교육	남한친척	남한문화접촉	공식소득
-0.786***	-0.0636	0.853***	0.281	0.372*	-0.0106	0.636***	0.0029**

- 언론신뢰도: 대부분 사실 29.2%, 일부만 사실 35.4%, 대부분 사실 아님 28.7%, 생각해본적 없다 6.5%
  - 당원 신뢰, 남한문화접촉 불신
- 집단우선 15.0%, 개인우선 84.8%

## 2. 결정요인 분석

- 계층: 당원, 교육, 직업

[당원]

- 김정은 직무평가는 부정적,
- 그러나 핵무기 보유 찬성, 총화출석률, 언론 신뢰 높다고 긍정 평가, 높은 체제의식

## [교육]

- 타지역 방문 고학력일수록 자주,
- 경제악화 원인 저학력일수록 '군비지출'(당국설명 지지, 정치적 긍정의식)
- 고학력일수록 개혁개방 부재
- **고학력일수록 '정치적 비판의식' 형성**
  
- 하지만, 고학력일수록 북한정권 예상유지시간 길 것으로 평가 (긍정적 정치의식 혹은 현실적, 객관적 정치평가)

# [직업]

## -김정은 지지도

체제의식	직업								
	노동자	농민	사무원	전문가	학생	군인	외화벌이 이 일 군	장사	가정부 인
주체사상 자부 심 '있다'	57.6%	59.2%	54.2%	52.8%	66.3%	80.3%	48.1%	60.9%	63.0%
김정은 지지도 (50%이상)	68.7%	66.3%	58.7%	56.8%	62.6%	73.8%	48.1%	61.0%	64.7%

- 상류층이 지지층이라는 기존 가설
  - 당원은 대체로 가설 지지
  - 교육은 대체로 가설 폐기
  - 직업은 '관료' 조사 못하여 판단 어려움

# 세대

- 김정은 지지도, 주체사상
- 고난의 행군 세대 (1970년대생)
  - 김정은 전반기에 나타나고 후반기에 없음
  - 40대연령층, 남한의 386세대
- 장마당 세대(1980년대생)
- 시장경험보다 연령변수가 더 크게 작용
  - 상인계급 김정은 지지도 낮지 않다
- 세대의 사회경제적 효과보다 생애주기 효과가 정치의식 변화에 더 중요하게 작용

# 성별과 지역

## [성별]

- 김정은 직무수행 잘못, 정권유지 단기, 핵 보유 반대, 타지역 경험 많음, 사회통제 안 된다 평가 → 비판적 정치의식 (시장경험과 관련)

## [지역]

- 평안도/함경도 높고, 양강도/강원도/자강도 낮다 → 경제수준과 외부개방 차이

# 시장경험

- 북한 내부 체제인식에 상당한 영향
  - 김정은 직무평가, 비판행위정도, 타지역 방문, 집단주의/개인주의에 영향
- 시장경험 많을수록 체제 부정적, 비판적 의식 형성
- 하지만, 정치사회의식 강화하는 측면도 존재, 체제유지에 긍정적 효과
  - 비공식 높을수록 정권예상유지 장기 견해
  - 경제적 이익으로 체제긍정 효과도 존재

# 문화접촉

- 체제의식 변화에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
  - 주체사상, 김정은지지도, 직무평가, 비판행위 정도, 핵무기 보유, 경제체제 선호도, 타지역 방문, 집단주의/개인주의 선호에 영향
- 2020.12 반동문화사상배격법, 2021.9 청년교양보장법
- 남한내 친인척 유무는 체제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음 (기존 가설과 다른 결과)

### 3. 체제의식이 통일,남한,주변국 의식에 미치는 영향

- 사상의식 강한 사람들,
  -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
  - 남한을 협력보다 경계,적으로 인식
  - 남한보다 중국과 러시아 선호
  - 중국보다 러시아 선호

## 4. 결론

- 김정은 집권 이후 체제의식 상승하다  
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
- 체제의식 변화를 야기하는 교육, 세대, 성  
별, 시장경험, **문화접촉** 효과
- 체제의식(정치의식)은 통일, 대남, 주변국  
인식에 영향